

약속의 자녀

출애굽기 19:1-6, 사도행전 2:37-47

최정웅 목사님

어떤 마을에 굴이 있었는데, 거기에 샘이 있었다. 그 물에 들어가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것이다. 한 집의 삼형제가 거기를 가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서 물을 하면 죽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말하지 말자' 하고 갔다. 그런데 들어가서 형이 말했다. "야, 여기서 말하면 안 돼, 죽어." 그리고 죽었다. 둘째가 '그것 봐, 진짜잖아!' 하고 죽었다. 셋째가 또 '나만 살았다!' 하고 죽었다. 삼형제가 다 죽어 버렸다. 삼형제가 안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찾으러 갔다. 추장이 들어가면서 이야기했다. "말하지 마라!" 그리고 죽었다. 간 동네 사람들이 '네!' 하고 대답하고 다 죽었다. 메세지 시작하면서 다 죽는 이야기를 하면 안 좋은데, 웃자고 한 이야기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뭐냐? 약속의 자녀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약속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요한복음 1:1에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11:3에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일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사야 55:11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행동함이라' 말씀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성취 속에 들어가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1. 우리는 언약의 자녀다.

우리가 다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란다.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쓰여졌고, 그들의 풍속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면 도움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 족속이라 하지 않고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똑같지 않다. 흑인도 황인도 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다' 하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면 된다. 유대에 와서 종살이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유대인이 될 수 있었다. 이런 것을 알고 보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언약을 제대로 지키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망했지 않은가.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란다.

(1) 그러면 언약이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언약은 '베리트(ברית)'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래 쪼갬다는 뜻이다.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이나 새를 가져다가 잡고 쪼갬다. 그리고 그 사이를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 지나간다. '만약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다. 그게 언약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제물을 쪼개놓은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지게 될 것을 맹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할 때 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인 언약이다. 그래서 약속은 해로워도 지켜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걸고 분명히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이 언약이다.

(2)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최초의 언약은 선악과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산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어겼다. 그래서 바로 인간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새 언약을 주셨다. 새 언약의 증보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15, 원시 복음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것이다. 창세기 6:14에는 방주를 지어 놓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고 했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러 번 확신시켜 주신 것이다. 그 중에서 창세기 22장을 보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다. 무슨 말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해 빠지게 되었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다. 이것이 언약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25에 사마리아 여자가 말한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겠다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생명을 얻고 복의 근원 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언약의 내용이다. 죽은 자가 그 이름만 믿으면, 그 언약을 붙잡으면 산다는 것이다. 그 약속대로 2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모든 언약의 성취자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시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지회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말이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3) 그러면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모든 문제 해결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다. 로마서 10:11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12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다. 여기에서 이 말을 꼭 붙잡아라. 영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람바오(λαμβανω)'라고 한다. 붙잡는다는 말이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곧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을 요한복음 1:12 본문에는 '엘라본(ελαβον)'이라고 썼다. 이것은 '람바오'의 부정과격형이다. 정경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정경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한 번 일어났으므로 영원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영접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다. 내 영혼이 진심으로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끝이다. 그래서 구원이 영원한 것이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있다.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왕좌에 모시고 영접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 속에 오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 '믿는 자라는 말을 알아야 한다. 원문에는 피스투우신(πιστευουσιν)이라고 되어 있다. 피스투오(πιστω)의 현재분사형이다. 하나님께서 필자에게 이런 단어를 쓰도록 놀랍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것은 계속되는 것이다. 진행형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을 계속 가지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초청은 모든 사람을 다 했다. 그러나 제한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초청은 다 받았어도 믿지 않으면, 24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권세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늘 행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13의 말씀이다. 예수님을 24시간 믿고 있으면 그 권세가 계속된다. 그 믿음을 안 가지고 의심하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신분에 맞는 삶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난다. 이것을 완전히 누리는 한 주간이 되라. 외국 말을 써서 미안하다. 나도 잘 모른다. (웃음) 그러나 원어는 잘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원어를 잘 주석한 분이 이상근 박사다. 그 주석을 사서 읽어보라. 장로님, 중직자 가정에는 그런 것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원어도 찾아서 보면,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다가 은혜를 받았던 베뢰아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다(행17:11). 너무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하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을 붙잡을 때 되는 것이고, 믿을 때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로마서 9:8에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했다. 육신적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다. 참사랑 가족 여러분, 언약 붙잡는 우리는 전부 하나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② 그뿐 아니다. 약속을 이어받은 자로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다. 창세기 12:1-3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낼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옛날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③ 그냥 복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 아니다.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 언약을 붙잡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뒤를 잇게 된다는 것이다.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상들이 받은 은혜를 받고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매주 구약 5장, 신약 3장씩 읽어보라. 그러면 1년 지나면 한 번을 다 읽을 수 있다. 우리 명증헌 장로님은 몸이 불편한데도 성경을 필사해서 한 권을 다 썼다.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라. 영적 문제,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춰해 보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3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12:1에 보니까, 그래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그들이 달려왔던 길을 따라 이어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계를 살리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4:28에 보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했다. 사도행전 3:25에도,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란다. '나는 이래페도 하나님의 자녀야, 언약의 백성이야, 주님을 붙'

잡았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만 믿으면 된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한다.

2. 우리 후대가 언약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맞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 후대가 언약의 자손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붙잡은 언약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제 집사님 셋째 아이 둘이 되어서 왔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말했다.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을 반드시 아이의 가슴에 심어라. 그래서 대대손손 흘러가게 만들어라." 돈 쥐도 소용없다. 다른 것 다 쥐도 소용 없다. 그러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심어 놓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1) 오늘 신약 본문 39절에 뭐라고 했는가? 이 약속은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으셨다. 이 복음의 약속, 구원의 약속, 메시아 그리스도 붙잡으면 산다는 은혜의 약속은, 우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에게 다같이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 그게 진도다. 그래서 절대로 나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지 마라. 나 잘 되기 위해서 돈 벌지 마라. 그런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라고 했다. 직장 나가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직장도 못 구하고 계속 어렵게 된다. 직장을 통해서 민족 세계 살려야 되겠다 꿈을 가져야 직장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숨어 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진정한 기쁨이 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만민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을, 우리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주셨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심어서, 자기만 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을 짓밟게 한다. 그 자체가 지옥 아닌가. 우리 후대들이 우리와 같이 언약의 자손으로 세워지는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언약의 자녀다. 우리 자녀도 언약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민족에게 유익한 자리, 민족을 살리는 자리, 세계를 살리는 자리에 설 수 있다.

(2)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후대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되기를 원하신다. 갈라디아서 3:29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했다. 한 세대의 운동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약속 안에서 유산이 계속 계승되고, 언약의 대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언약의 대가 이어지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셨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신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 귀한 복음운동의 흐름이 우리 세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 유업이 후대에게 계속 약속 안에서 이어져가도록 헌신해야 한다. 그래서 장로님, 중직자들, 청년들이, 후대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두고두고 축복이 되는 것이다.

(3) 그러면 우리 후대가 어떻게 해야 우리와 같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되겠는가? 방법이 무엇인가?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다.

①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우리 후대가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도행전 1:1-11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약속 붙잡으면 성령충만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분은 승천하셨고, 세계복음화 후에 재림하신다. 이 부분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주님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성령충만으로 언약을 완전히 정리해서 각인시켜 주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의 내용을 통해서 약속이 무엇인지를 후대가 깨닫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후대 때문에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유일한 새 짝은 분은 그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주지 않았다. 딸에게만 동산을 상속시켜 주고, 아들들에게는 아무 것도 주지 않았다. 그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위대한 청지기, 산업인들이 있었다. 자리만 주면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환장하는 세상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백성이 다 죽게 된다. 자기 가문도 죽게 된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다.

② 그리고 나서 해야 할 것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법을 깨닫고 누리게 하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기록해진다. 언약을 붙잡았으면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사도행전 1:12-14이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라고 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의 증거를 한 번만 보여줘도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세계 살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완전히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훈련이 후대에 되어야 한다. 그래서 훈련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아끼지 않고 보내야 한다. 가서 사회성을 배우고 집중을 배워서, 정말 언약이 가슴에 박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다녀오면 포럼을 해야 한다. '무슨 말씀을 하셨니? 어느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니? 그런 말씀이 있었니? 너무 좋구나.' 그렇게 격려해주면, 아이는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은 말씀이었구나' 하고 알아 버린다. 그런데 아이가 다녀와도, "그런 것도 있었어? 그래도 돈은 벌어야지." 그렇게 해 버리면 아이들은 언약을 다 놓쳐 버리게 된다.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사는 길인지 가르쳐야

한다. 이윤곡 선생이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데, 나이가 일곱 살이었다. 어떤 도사가 지나가다가 서당 학동들에게 '너는 무엇이 되고 싶느냐' 물어보는데, 다들 경승이 되겠다 판서가 되겠다 부호가 되겠다 하는 식으로 큰 포부를 말했다. 그런데 윤곡은 '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다. "네가 사람 아니냐?" "그래도 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도사가 놀라 버렸다. 민족 살릴 위대한 인물이 되겠구나 하고 칭찬했다고 한다. 인성이다.

③ 어떻게 해야 약속 성취를 체험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2:1, 오순절 날을 체험하면 된다. 마가다라방의 성령충만을 체험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게 된다. 사도행전 2:9-11에, 주변이 살아나면서 진도 문이 계속 열린다. 사도행전 2:13에, 말씀이 성취되고, 강단이 살아나게 된다. 2:37-41에 보니까 제자가 살아난다. 2:42-47에, 3천 제자들을 통해서 현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총회장으로서 두 가지 보람 있는 일을 했다. 하나는 총회를 안정시킨 것이다. 총회가 끝나자마자 총회주일을 함으로써, 총회가 궁핍해서 류목사님께 빌려러 가는 것을 하지 않도록, 정말 총회가 제대로 힘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하나의 보람이다. 또 하나는, 우리 램턴트신학교를 총회의 최종 신학교로 인준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두고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여러분, 현장과 현실을 능히 뒤집을 수 있는 말씀운동의 체험을 우리 후대가 하게 되면, 다라방을 정말 체험하고, '말씀 들어가니까 정말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아이는 달라지게 된다.

어떤 영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못된 것을 다 기획했다고 한다. 동성에 같은 일, 교회 망치는 일을 자기가 다 계획했다고 한다. 완전히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절에 가서 생각을 하려고 갔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못 견뎌서 돌아왔다고 한다. 집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꺾을 것인가 하면서 기독교방송 TV를 켜는데, 목사님이 '회개해야 한다고 설교를 하는 것이다. 회개 좋아하네.' 혼잣말로 내뱉었는데, 그 순간 혀가 굳어져 버리고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그러더니 '의' 하면서 얼어진 것이다. 바울이 쓰러진 것처럼. 이분이 번개같이,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를 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제일 바르고 의로운 사람이며, 교회와 교인이 세상을 다 망친다고 생각해서, '저것들을 짓밟아서 목사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제서야 그게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고 했다. 그렇게 완전히 회개한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이 운동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쪽 이야기를 하더라. 그 사람이 그때 회개 안 했으면 그때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려고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살려두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쓰러뜨리기 전에, 불평 불만은 그만두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어디에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두고 다시 한 번 기도해 보라. 내가 무엇을 해야 자녀들에게 믿음이 제대로 전달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자녀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라. 오늘부터 사무실에는 장로님, 중직자들 출입하지 마라. 다른 소리 하면서 직원들 일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는 한 교우가 너무 그림고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오전 7시 반 1부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찾아가 보았다. 교회에서 나간 사람 다시 붙잡아야 할 것 아닌가. 우리에게 왜 중직을 맡겼는가.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번 달은 종교개혁의 달이었다. 나는 무슨 개혁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 이번 한 달은 정말 은혜받는 달로 살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후대가 이 체험을 반드시 하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한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게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후대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언약의 자손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2:17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일을 만들고, 일을 파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아니다. 나이 들어서도 꿈을 꾸게 된다. 나이가 들어서도, 교회의 미래를 보게 된다. 꿈을 꾸라. 나도 다시 꿈을 꾸다. '현장에 가야 되겠다.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나의 현장은 어디일까?' 미래를 보고 미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은 약속 붙잡은 후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후대가 참된 꿈을 가지고 미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도록, 우리 자녀가 언약 안에 있게 하라. 언약을 붙잡고 그 성취를 누리도록 자녀들을 세워라. 그렇지 않아서 자녀들이 망하면 그보다 슬픈 일이 없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한다. 그것을 바로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신 주님, 언약의 자녀들에게 오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 램턴트 키워 하나님께 바치는 교회, 이 지역 주민을 살리고 민족 살리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